

코믹·정극 모두 소화… 믿보배 박하선, '검은 태양'에서 또다른 변신 기대

〈믿고 보는 배우〉

배우 박하선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배우가 아닌 송곡여자고등학교 학생으로 KBS '도전! 골든벨'에 출연하면서 브라운관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에게 '도전! 골든벨' 출연은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제작진의 권유로 진행자였던 김보민 아나운서와 예쁜 척 대결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친구들의 미움을 샀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등학생 3학년이 되기 직전인 2005년 1월, 박하선에게 연예계에 데뷔할 기회가 찾아온다. 그는 당시 영화 '키다리 아저씨' 시사회 무대인사를 보기 위해 서울극장을 찾았다. 배우들을 눈앞에서 보기 위해 극장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연예기획사 매니저로부터 "연예인 해볼 생각 없느냐"는 제안과 함께 명함을 받았다. 명확한 꿈이 없었던 박하선은 이 일을 계기로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실기 훈련을 받은 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합격했다.

박하선은 2005년 SBS 드라마 '사랑은 기적이 필요해'로 데뷔했다. 이듬해 2006년 영화 '아파트'로 스크린에도 진출했다. 이후 그는 KBS 드라마 '경성 스캔들'과 영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바보'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08년 SBS 드라마 '왕과 나'에 폐비 신씨 역으로 출연하면서 대중에 얼굴을 알렸고 이어 2010년 MBC 드라마 '동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동이'에서 그는 인현왕후 역할을 맡아 기품 있고 단아한 이미지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그해 연말 '2010 MBC 연기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받으며 주연 배우로 거듭났다.

이듬해에는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다리의 역습'에 출연하면서 단번에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코믹 연기에 도전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그는 극 중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하선 역을 맡아 과감하게 망가지며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얻었다. 이 드라마로 '2011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시트콤부문 여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드라마 '투윅스' '쓰리 데이즈' '유혹' '혼술남녀' '평일 오후 세 시의 연인' 등과 영화 '청년경찰'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다.

박하선은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으며 호평받은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완벽한 육아고수이자 조리원의 여왕벌인 조은정을 연기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코믹과 정극을 오가는 탁월한 연기력으로 극을 이끌며 '박하선의 재발견'이라는 평을 얻었다.



상지리츠빌2차 서울 서초구 반포동 99-3

이어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 웹드라마 카카오TV '며느라기'에서 초보 며느리 민사린으로 완벽 변신해 전국 며느리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는 곧바로 누적 조회수 1000만회 돌파라는 결과를 이끌었다. 박하선은 원작에 충실한 스타일링과 표정으로 외형까지 원작 속 민사린을 거의 똑같이 구현해내며 '믿고 보는 배우' 반열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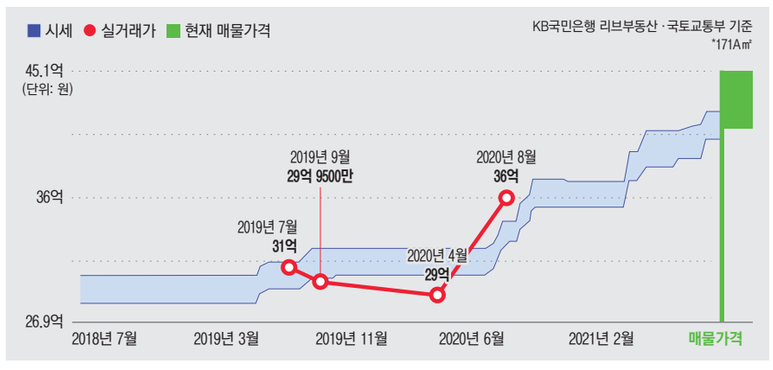
이밖에도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 '고백'을 통해 의미 있는 행보를 이으며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부문 배우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하선은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MBC 드라마 '검은 태양'의 주연으로 또 다른 변신을 예고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 첩보 액션 드라마를 표방하는 '검은 태양'에서 박하선은 엘리트 요원 서수연을 맡아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드라마는 9월 17일 오후 10시 첫 방송될 예정이다.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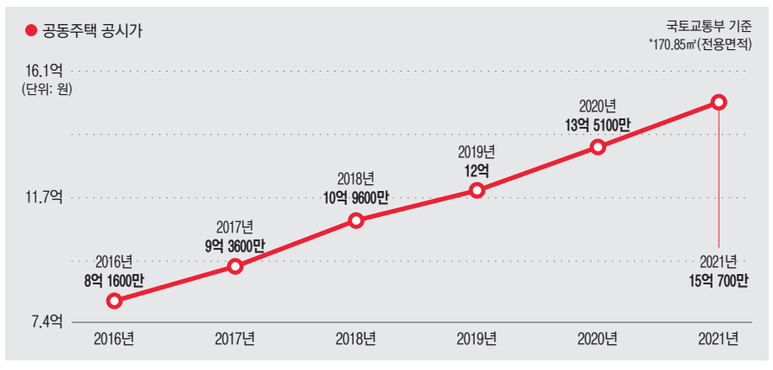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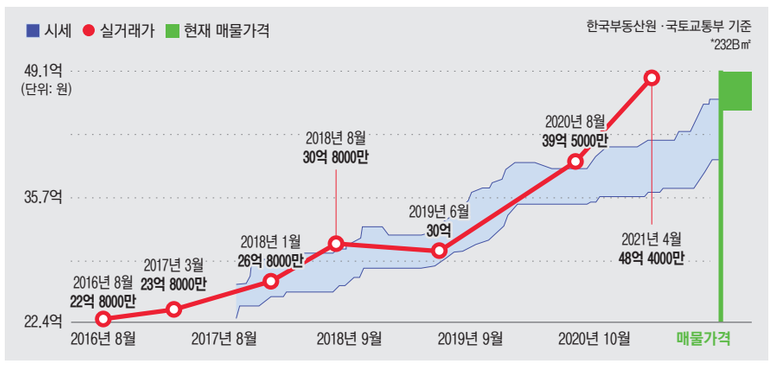
삼창골든빌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586-3



반포자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3



박태철

현)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



박태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의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성빈센트병원 인턴, 성모자애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임상과장, 동북부 수도권 부인종양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9월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의정부성모병원이 외상·응급·중증 환자를 위한 지역 의료의 최종 거점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휘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 병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쇄됐을 당시 고강도 방역을 지휘해 정상 가동시켰다. 올해 4월 종근당·병원협회에서 주최한 '제11회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존경받는 병원인상 CEO 부문'을 수상했다.



백명현

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명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화학 석사 및 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화학과 조교수가 됐으며 2000년 서울대학교 자연대 화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정년퇴임 후 한양대학교 화학과 석좌교수를 지내다 2017년 퇴임했다. 백 명예교수는 세계 최초로 거대고리 착화합물을 이용해 다공성 초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 자기조립 기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다공성 초분자 결정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2001년 여성과학기술자상, 2008년 여성 최초로 한국 과학상, 2014년 일본 배위화학회 국제상 등 화학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으며 낙후됐던 한국 화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정일문

현)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한신증권에 입사해 30년 이상 일했다. 한신증권은 동원증권으로 이름이 바뀐 뒤 2005년 한국투자증권에 흡수합병됐다. 정일문 사장은 ECM부 상무, IB부문장, IB본부장, 기업금융본부장, 퇴직연금본부장, 개인고객그룹장 부사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했다. 그 중에서도 IB 부문에서 27년 이상 근무해 업계에서는 IB 전문가로 통한다. 벤처기업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부에서 실무 업무를 익힌 그는 다양한 부성서 한국투자증권을 투자업무의 명가로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1년 만에 한국투자증권 당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42.2% 늘어난 7099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호실적을 이뤘으며 현재 3연임 중이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한대희 시장(왼쪽)이 군포지역 재개발정비사업 협의회(가칭)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위한 주민소통 나서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는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20일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군포지역 재개발정비사업 협의회(가칭)'와 주민간담회를 열어 정비기본계획수립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다.

간담회에는 한대희 시장과 관계공무원, 정비기본사업 총괄계획자인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이창수 교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군포도시공사 관계자, 재개발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10여개 구역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관리방안의 부재로 주택 및 편의시설 등의 노후화와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크다"며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군포시의 최대 현안인 기성 시가지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 동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기성 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기초현황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지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대희 시장은 "기성 시가지의 주민들이 겪고 있을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주여건 등 재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야의 정비방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쯤 주민공람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구내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고성능 단열재, 창호, 고효율의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약 26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4개소(월계3동·하계·중계·노원 어린이집)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사업이 완료된 곳은 월계3동 어린이집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0㎡ 규모로 보육실 6곳을 갖췄다. 이 건물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런 까닭에 지속적인 실내 보육환경 개선 사업에도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천장재 및 경량 철골 천장틀 등의 기존 바닥 및 마감재를 고단열재 마감재 등으로 교체했다. 더불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복층유리로 창호를 교체했다. 아울러 각 실의 문 및 벽 손잡이 등을 교체하고, 비상탈출구 난간 설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는 나머지 중계어린이집과 노원어린이집은 연내에, 하계어린이집은 내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이 네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구는 국내 최초 친환경에너지 자립단지인 노원에너지제로주택과 전국 최초로 탄소제로하우스인 노원에코센터를 설치했다. 작년에는 서울시 제로 에너지 건물 시범사업으로 주택에너지 성능을 극대화한 편백경로당을 신설하는 등 저탄소·친환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노원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4개소에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LED, 이중창, 바닥 등을 개선한 월계3동 어린이집.

오승록 구청장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은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